



제 7 장 : 수원의 공동체 신앙

◆ 고색동 큰말 도당굿

또한 고색동 큰말에는 도당굿이 전승되고 있다. 원래 고색동 지역은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바닷물이 밀어 닥쳐 주민들이 물을 피해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고색(古索)'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고색동은 바닷가 마을로 풍어굿이 행하여지던 것이 점차 이 지역이 육지화 되면서 농사를 주로 짓게 되자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도당굿의 성격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을에는 솔대백이 나무라고 부르는 전나무 네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닷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소금에 젖어서 비가 오려고 하면 나무가 젖어서 하얗게 소금이 배여 나왔다고 한다.

고색동의 도당굿은 3년에 한 번씩 거행되는데, 2년은 당집에서 제를 지내고 3년째가 돌아오면 마을의 주민들이 추렴하여 외부에서 만신들을 청배해서 정성으로 굿판을 펼쳐왔다.

고색동 도당굿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지던 마을의 대동굿이다. 음력 9월 말이 되면 마을에서 길일을 택해 도당굿 날짜를 10월 초로 잡으며, 먼저 주민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1인과 일을 맡아볼 주비 4인을 선출한다. 제를 지내는 해는 제관들이 당제(堂祭)만 모시고, 굿을 하는 해는 금곡동 도벵이에 사는 화랭이인 코주부와 재인 7~8명이 참가하여서 굿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경기도 도당굿 보존회의 무속인들이 굿을 주관하고 있으며 평택에 사는 김운심이 주무를 맡고 있다.

당집은 붉은 벽돌에 기와를 얹은 1칸 정도의 규모로 잘 보존되어 있다. 당 안에는 정면에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함께 서 있는 탕화(37)를 액자 안에 넣어서 모시고 있고 액자의 양편에는 당

신(堂神)의 의대를 걸어 놓았다. 왼쪽 벽에는 백마신장의 탕화가 걸려 있다. 제단은 정면에 2자 가량의 높이에 마련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색동 큰말의 당집에서는 2년은 유교식 제의만을 행하고 3년마다는 유교식제의와 도당굿이 함께 행하여진다. 제관은 마을의 주민 가운데 선출하며, 선출된 제관은 선출된 날로부터 금기를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다. 금기의 내용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부인과 합방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도 가려서 비린 것은 먹지 않으며 상갓집에도 가지 않는다. 매일 목욕하면서 근신하고 있다가 제에 임한다.

제물은 소머리와 삼색과일, 포와 떡을 준비한다. 술을 옛날에서 조라를 담았지만 현재에는 사서 쓰고 있다.

고색동 큰말의 주무였던 금곡동 도뱅이 코주부(이덕만)는 고색동과 평동 등 그 인근이 모두 단골판이었으며 그 부인은 현 경기도 도당굿의 기능보유자인 오수복선생과 인척관계에 있던 무당이었다고 전한다. 코주부는 특히 앓은반 축원을 잘하고 장고를 잘 치던 재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옛날 도당굿이 행하여질 때에는 먼저 당제로 영신→초헌례→아헌례→종헌례→소지→송신의 순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소지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대동소지만을 올렸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오늘날에 행하여지는 도당굿과 옛날에 행하던 굿의 절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당시(수인선 철로 근처에 당집이 있을 당시) 당에서 제를 올리고 나면 당주집에서 당주집굿을 하고 무당일행이 거리부정을 치면서 당에 도착하여 당맞이를 하였다. 그리고 술대백이(마을에서는 골대라고 부른다)에 가서 굿을 한 후 당으로 돌아와 굿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 별말 도당굿

◆ 유래와 현황

수원역에서 세평지하도를 지나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평동 동사무소를 들어가는 좁은 길이 나온다. 동사무소 앞을 지나 50m 정도를 가면 좌측에 큰 당나무가 한 그루 있고 옆에는 돌로 벽을 쌓고 기와를 얹은 1칸 정도의 당을 볼 수 있다. 당안에는 말을 탄 김부대왕(마을에서는 김지대왕이라고 부른다)과 부인을 그린 탕화가 벽면에 걸려 있다.

이 곳에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인 김부대왕을 모신 까닭은 시흥 군자봉 구준몰에 계신 서낭님인 김부대왕이 마을에 내려와 유가(遊街)를 도시다가 이 곳에 와서 머물렀다고 하여서 별말 도당을 구준몰(군자봉 도당)의 작은당이라고 한다.

이 별말 도당굿은 200년 이상 마을의 안녕과 풍농(農)을 기원하는 대동굿으로 전승이 되어오고 있으며 음력 정월 11일에 마을에 있는 당주 집에서 당주굿을 한 후 서낭모시기와 마을을 한바퀴 도는 돌돌이를 한 후에 당안으로 들어가서 도당굿을 한다.

별말 도당은 원래 초가로 되어 있었으나 6,25 동란 시에 파괴가 된 것을 당시 신경직물의 사장인 최학배(작고)가 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였다고 한다. 별말의 당은 개인 소유지에 있으며 지금도 당의 관리는 SK케미칼의 관리팀 주임인 최석성이 맡아서 하고 있다.

1999년 2월 26일 아침 도당굿의 주무인 조광현(경기도당굿 이수자)이 당주 이일순(여, 74세, 평동 47번지)의 집에서 당주굿을 마친 후에 마을의 주민들이(과거에는 마을에서 모두 나와 풍장을 잡고 서낭을 모셨지만 몇 년 전부터는 남자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마을의 부녀자들만 참석을 하고 있다) 풍장을 치면서 서낭을 모셔들였다. 당에 도착한 주민들은 당 안에 굿상을 진설하고 주당 물림을 올린 후에 선부정으로 도당굿을 시작했다.

평동 벌말의 도당굿에서는 신라 경순왕인 김부대왕과 안씨부인을 모신다.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2월이 되면 서낭님을 군자봉에서 내려 모시고 주변 마을을 유가를 도는데 이때 평동 벌말까지 오신 구준물 서낭님이 이 곳에서 쉬고 가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당을 짓고 김부대왕을 모시고 구준물의 작은 서낭이라고 불렀다.

경기도당굿 인간문화재 오수복은 구준물 도당이 원도당이며 안산 잣머리 도당이 처가 도당이고 벌말 도당은 작은집 도당이라고 한다. 벌말 도당굿은 원래 정월 초에 길일을 받아서 굿을 하던 것을 현재의 주무(主巫)인 조광현이 굿을 맡으면서 음력 정월 11일로 날짜를 정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굿을 하고 있다.

벌말 도당굿은 오랜 시간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굿이다. 정월에 일찍 굿을 하므로 해서 일년동안 마을에 닥치는 화(禍)를 피하고자 하는 무속적(巫俗的) 사고와 함께 정월은 보름이 지나면 그 해의 농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풍년이 들것을 염원하는 정성으로 마을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나와서 한바탕 축제의 마당으로 펼치던 대동의 굿이었다. 벌말 도당굿은 200년 이상 마을에 전승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을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굿이 진행이 되었는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50년대 이후에는 수원의 큰만신인 버드네만신이 주무(主巫)로써 굿을 맡아 하다가 그 이후 현재 경기도당굿의 기능보유자인 오수복 등이 함께 굿에 참여를 하였다. 현재는 경기도당굿 이수자인 조광현이 주무를 맡아서 매년 도당굿을 치루고 있으며 2월 26일(음력 정월 11일)의 굿에서는 주무 조광현외 2인이 굿을 맡아 하였다.



평동 별말의 도당굿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온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큰 굿으로 인근의 고색동 도당굿과 함께 성대히 치러졌으며 통돼지를 잡아 굿상을 차리고 제물도 온 마을사람들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차렸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이 차츰 커지고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차츰 그 규모가 작아졌으며 현재는 주민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조금씩 거출을 해서 굿비를 충당하다 보니 굿상도 차츰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평동의 경우 아직도 타동(他洞)처럼 발전이 되지 않고 예전의 모습을 지키고 있어서 굿비를 추렴하는 일도 어려워졌다고 굿에 참석한 주민들은 아쉬워한다.

별말의 도당굿이 규모가 축소되면서 마을 주민들 중에는 도당굿 자체가 중단이 될 것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굿비가 모자라는 것은 선경직물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수가 되고 있다. 또한 당의 옆에 있는 신목(神木)을 집을 짓느라고 건드린 주민이 서낭님에게 심하게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도당굿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 수원영동거북신당 도당굿

좌. 수원 영동시장 거북산당의 주신으로 모셔지는 도당 할아버지/할머니

우. 거북산당에 모셔진 대왕님(염라대왕이라고도 한다.)

1. 유래와 현황

영동 거북산당 도당굿은 200여 년간이나 유서 깊게 전해 내려온 지역의 전 통굿으로 경기도 수원 팔달문 인근의 영동시장 내에 신당이 있다. 시장의 역사는 1790년경으로 수원성 건립과 함께 하며 그 때부터 터주가리 형태의 제당이 있었다고 한다.

영동 시장 내에 거북산당이 축조된 이유를 보면 화성 건립을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문밖에 상포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인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되자 상인들을 주축으로 상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도당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시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당고사를 지내지 않으면 시장에 불이 잘 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시장에서 터를 잡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없어도 당제는 올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당의 명칭이 거북도당으로 불리는 것은 원래 이 곳에 거북이 모양의 돌이 있었다고도 하며 또 인근의 구천동과 가깝고 주위에 물이 많은 곳이며 풍수지리적으로 불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신위(神位)와 제일(祭日)

도당곳에서는 당을 마련하고 그 안에 도당신(都堂神)을 섬기는데 신위(神位)는 위패를 모시거나 신화(神畫)를 모셔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동 거북산 당 도당곳은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대왕님(염라대왕)을 모시고 매년 음력 10월 7일에 영동시장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지내오던 것으로 시장의 번영과 상인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 공동체적인 삶의 필요로 창출된 곳이다. 그러나 1990년 초에 이르러서는 영동시장 번영회에서 별도로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는 오수복과 일부 무녀들에 의해서 시장 상인들의 개별 치성 형태로 쇠락한 형편이다.

이는 현대화 및 시장 상인들의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용우 선생으로부터 오수복에게로 계승된 경기도 도당곳의 갖가지 워낙 까다로워 이를 익히려고 하는 후진의 양성이 어려워 도당곳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도 그 이유가 있겠다.



3. 주무(主巫)의 형태 및 전승

영동 거북산당은 옛날에는 세습무에 의해 굿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재인청 도대방을 역임했던 이종하의 삼남 이용우 선생이 생존 시 거북산당 도당굿을 주관하였는데 이용우 선생이 12대를 이어오던 세습무의 집안출신임 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으로 되어 있는 영동 거북산당은 처음에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만든 터주가리 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1935년(乙亥年)에는 터주가리 당 앞에 작은 연못이 있었고 옆에는 3층으로 된 탑이 있었으며 주변에는 기와집과 판잣집들이 있어서 이 굿이 시장의 외곽지역에 있던 당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터주가리 당을 당시 인계동에 거부하던 이 씨 만신이 관청의 도움을 받고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거북산당을 축조하고 그 안에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그리고 대왕님의 탕화를 모시고 난 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1994년 10월 24일(음력 9월 10일) 수원시청의 지원으로 당을 수리하고 단청을 새로 입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당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연못이 메어지고 그 자리에는 앞 건물에서 가 건물을 내 지어 옛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당의 형태가 변한 거북산당 도당굿 은 세습무에서 강신무로 다시 세습무로 전승이 되어오다가 현재는 그 기능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인 경기 도당굿의 기·예능보유자인 강 신무 오수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